

## 도심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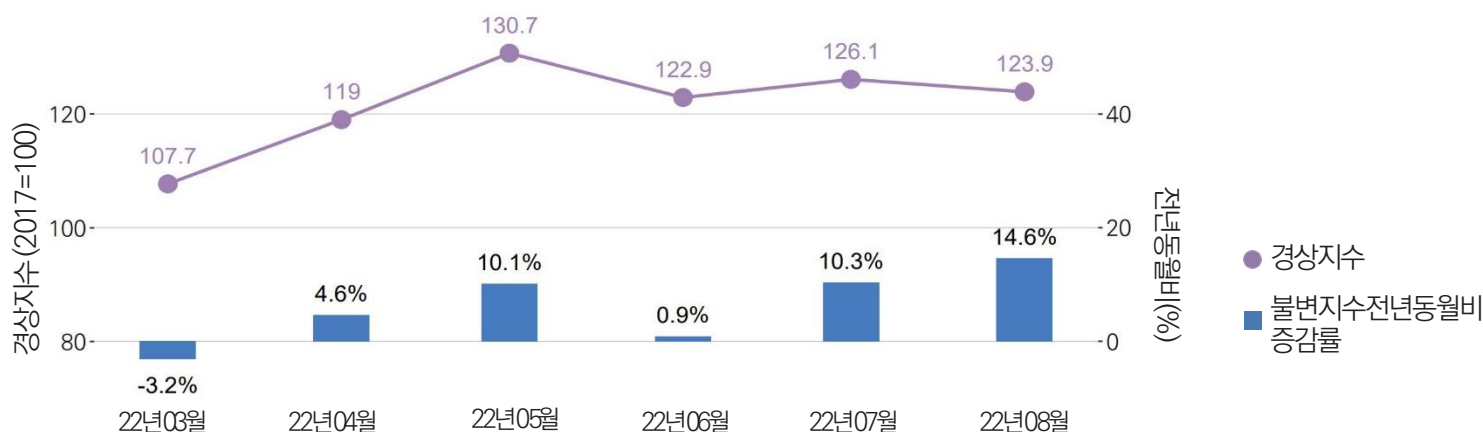
### •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4.6% 상승.

- 전년동월대비 +14.6% = 소매업의 기여도 +0.4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4.3%p  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  
※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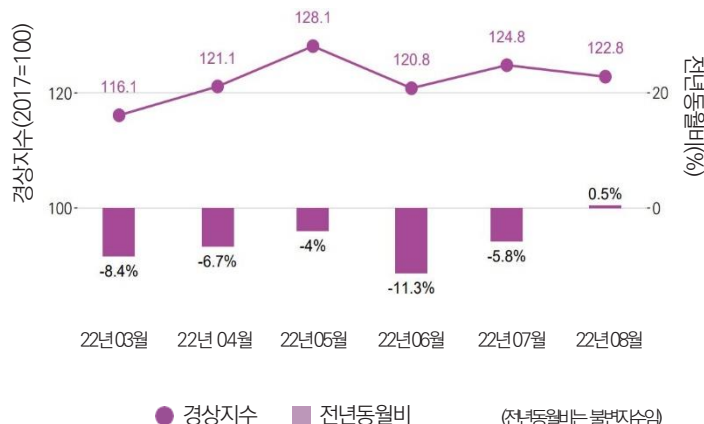
### 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0.5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47.1% 상승.

- 도심권 소매업은 전월 하락했던 의복·섬유·신발(7월 -30.1% ⇨ 8월 -29.1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7월 -28.3% ⇨ 8월 -5.3%), 연료(7월 -10.8% ⇨ 8월 -5.5%), 무점포소매(7월 -9.8% ⇨ 8월 -0.6%) 등의 업종이 감소폭이 축소되고 음식료품(14.8%), 종합소매(6.5%), 기타상품(5.7%) 등이 증가폭을 확대하며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증가세 전환. 특히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무점포소매(-0.6%)가 9개월 연속으로 하락
- 8월 도심권 소매업은 음식료품, 기타가정용품, 종합소매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상품 등의 순으로 소비 증가
- 반면 의복·섬유·신발, 연료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무점포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-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이 상승폭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은 (전월보다) 소폭 축소. 숙박(68.3%), 음식점(47.2%), 주점·커피전문점(18.4%) 등의 모든 업종이 상승
- 8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, 음식점, 주점·커피전문점 순으로 소비 증가

### 도심권 소비경기지수



###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###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